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결의문

한강과 서울숲 등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구는 지난 2012년 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성수지역은 수제화 특성화 사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예술거리 조성 및 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중심부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구 중심지역에 각종 공해를 유발시키는 혐오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40년 가까이 자리잡고 있어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한강과 서울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정면 배치되는 오염 시설의 존치는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성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성동 지역의 발전 저해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삼표레미콘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현 위치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이 주변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친환경 공원으로 서울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숲도 조성되어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도심 공해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존치하면 안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삼포레미콘과 같은 환경오염시설이 발생시키는 각종 매연과 분진, 교통정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과 견제를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매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상은 강남 친화 정책이 여전히 판을 치는 형국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낙후된 서울의 동북부 지역발전과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2. 삼포레미콘 공장 이전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천혜의 입지조건과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삼포레미콘 공장 부지에 세계적인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한다면 주변의 한강 및 서울숲과 조화를 이뤄 유럽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고, 최근 회색도시에서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수 지역에도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서울의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삼포레미콘 공장의 조속한 이전과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30만 성동구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의원 일동